

해설이 있는 우리문화 콘서트

속초도문농요

속초도리원농악

북청사자놀음



속초문화원

■ 목 차

- 머리말(노광복 원장)
- 화보
(속초도문농요 / 속초도리원농악 / 북청사자놀음)
- 속초 도문농요
 1.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2. 속초 도문농요의 전승과정
 3. 속초 도문농요의 전승내용
 4. 속초 도문농요의 특징
 5. 속초 도문농요 보존회 활동
- 속초 도리원 농악
 1. 도리원 마을의 역사와 지리
 2. 도리원 농악의 유래와 계승
 3. 도리원 농악의 구성과 마당
 4. 도리원 농악의 편성과 복색
 5. 도리원 농악의 특징과 연혁
- 북청사자놀음
 1. 탈놀이와 우리 민속
 2. 역사 속의 사자춤 기록
 3. 북청사자놀음 개요
 4. 북청사자놀음 구성
 5. 북청사자놀음 대본

해설이 있는 우리문화 콘서트



■ 발 간 사

21세기 문화시대에 지역의 특화된 문화컨텐츠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초문화원은 이 같은 인식 아래 '속초 도문농요', '속초 도리원 농악', '북청사자놀음'을 매년 전승·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귀중한 전통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정리가 개별적인 연구자료만 남아있는 탓에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향토문화축제나 문화이벤트 때 이들 전통문화 공연은 매년 무대에 올리고 있지만 속초 시민조차 그 의미나 구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속초문화원의 향토사 안내서는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속초 특유의 전통문화 공연을 한 곳에 모아 안내하는 기능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공연의 유래와 특징, 내용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여 보다 쉽게 전통문화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책의 발간으로 우리 속초시민은 물론 속초를 찾는 관광객에게 속초문화를 알리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속초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초문화원 앞으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 보존에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

- 해설이 있는 우리문화 콘서트 -

사진으로 보는 우리문화





입장 : 신목과 서낭대를 앞세우고 입장하는 장면



첫째마당 서낭굿 : 신목을 향해 주민들이 모여 절을 하며 마을의 안녕과 소원을 기원한다.



둘째마당 논 삲는 소리 : 한스레를 끌고 논을 가는 장면



셋째마당 모 심는 소리 : 모를 다 심고 나서 한바탕 노는 장면



▼ 넷째마당 김 매는 소리 : 초벌 김과 두벌 김, 세벌 김을 메는 장면



▼ 다섯째마당 파대치기와 새쫓기 : 파대를 치면서 그 소리로 새를 쫓는 장면



여섯째 마당 벼 베는 소리 : 벼를 베어서 묶는 장면



일곱째 마당 마댕이와 벗가리 지우는 소리



▼
서낭굿



▼
뱃고사굿



▼
십자진



▼
입구자진



▼
가마니짜기



▼
발전자진



고

성

▼
글자놀이



▼
개인놀이(소고놀이)



▼ 양반, 꺽쇠 등장



▼ 애원성 춤



거사, 사당춤



꼽추춤



▼ 넋두리춤



▼ 사자춤

- 해설이 있는 우리문화 콘서트 -

속초 도문 농요

속초
도문
농요

속초도문농요는
속초지역에서도 농경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도문동 지역에 전해지고 있는 농요로
강원지역 소리의 구성음 체계인 메나리토리로 이루어져
다소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7년 2월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속초도문농요보존회는 2008년에 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받아
향토민속의 보존과 전승에 힘을 쏟고 있다.
농사의 전 과정을 전통공연으로 만날 수 있어
교육효과도 큰 공연이다.



1. 속초시 민요의 분포와 양상

속초는 '앞뜰엔 동해안, 뒤틀엔 설악산'이라고 읊는 팔경가처럼, 바다와 산악을 끼고 수많은 설화가 잉태되었고, 그 풍부한 이야기만큼 소리도 풍부하게 이어져왔다. 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뱃소리가 연면히 이어져왔고, 도문뜰*, 조양뜰*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에서는 농사 일을 풀이한 농산노동요가 전승되어 왔다. 특히 도문동에서 전승된 메나리농요는 삼척이나 춘천권의 메나리와 달리 신흥사의 불교문화권 영향을 입어 염불이나 범패*소리를 닮은 것이 특징이다. 소리의 형태는 양양메나리와 흡사하다. 왜냐하면 도문동과 양양 강현면이 인접한 농토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 행정구역상 양양군에 속초지역이 속했던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속초는 또한 실향민의 고장이며 수산도시이므로 수산노동요도 해안권의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어로방식의 변화로 가창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청호동 지역에는 함경도 피난민의 뱃소리가 남아 있는 것은 함경방언과 마찬가지로 소리권의 독자적인 섬으로 남은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도문메나리 농요는 2003년 6월 16일 양구에서 개최된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인정받았으며, 2004년 10월 14일 동해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 축제에 강원도를 대표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문화돋보기



도문뜰* : 현도문동

조양뜰* : 현조양동 평지

범패* : 절에서 주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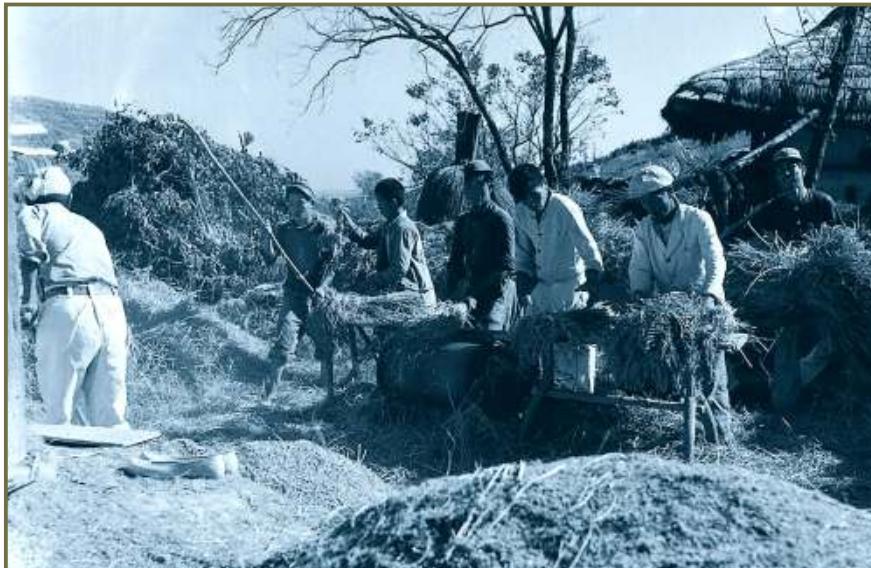
2. 속초도문농요의 전승과정

농요란 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다.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하는데, 특히 김을 매면서 부르는 소리를 중부지방에서는 메나리라고 한다. 이 메나리는 미노리, 미나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진다. 메나리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최근에 장정룡, 강등학, 김영운 등이 영동지방의 메나리에 대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도문동의 메나리는 소리의 유장함과 곡조 등으로 미루어 불교적 색채가 배어 있는 범파소리와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도문동은 설악산을 들어가는 관문으로, 이는 아마도 이 지역의 인근에 절이 많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사실 메나리의 가창자들은 도문동과 이웃한 양양 상복리에도 많이 있다. 이곳은 도문동과는 평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이웃하고 있다. 그래서 양양 상복리의 메나리를 보면 도문동의 메나리의 특색을 더욱 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옛 농사짓는 모습



도문동의 메나리 농요는 사실 그 근원이 오래되었다. 김남형 옹은 양양에서 태어나 도문동에서 장가들어 이곳에서 생업을 일궜다. 이분은 메나리를 이곳에 장가 온 이후 처외숙 되는 故오세준, 故박남식 등에게서 메나리를 배웠다. 당시 김남형은 19살이었고, 오세준은 50여 세가 넘었다고 한다. 사실 메나리 가사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배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박남식이란 분은 가사를 아주 또박또박하게 말을 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당시 양양 방면 논을 하서평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을 장재터라고도 부른다- 이곳 도문뜰에서 메나리 소리를 하면 양양 쪽에서도 그 소리를 받아 듣고 메나리 소리로 화답을 했다고 한다. 서로가 소리가 들릴 만큼 메나리 소리가 우렁찼었고, 당시 유행했었던 소리임을 알 수 있다.

모가 아직 어릴 때, 즉 아이짐(초벌 김)을 맬 때에는 메나리는 하지 않았다. 약한 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벌 짐을 맬 때부터 메나리를 했다. 네벌 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세벌 짐을 매니까 두 번 정도 짐을 맬 때마다 메나리를 불렀다고 할 수 있다.

메나리는 보통 여럿이 부르는데, 소리를 매기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소리를 매기면 나머지 일꾼들은 따라서 메나리를 부른다. 그런데 메나리라는 것이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소리여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지는 못했다. 나름대로 음악성이 있어야만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리였다. 어떤 이는 평생을 배우려 하다가 끝내 못 배우고 마는 분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메나리 소리는 아쉽게도 기계화 영농이 시작되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를 심고 김매기를 하는 것이 기계가 대신하면서부터 차츰 노동의 힘겨움을 이겨내기 위한 소리를 할 필요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 영농기계가 들어오고, 제초제가 들어온 것은 20년은 넘었고, 30년은 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차츰 메나리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전신인 태백문화제가 있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이 마을에서는 김남형, 오순석, 이상옥 등이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당시 민요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 무렵만 해도 도문동에 메나리는 전승되고 있었던 것인데,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었다.

이후 기계화 영농으로 삶은 윤택해졌지만 우리의 고유한 소리는 차츰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2000년대 들어와 『강원의 민요』를 편집하던 중 속초에서 이 메나리가 발굴되었다. 이후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문동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농요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논 삶는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 소리, 메나리 소리, 벼베는 소리, 도리깨질 하는 소리, 벗가리 지우는 소리 등 수많은 소리가 채록되면서 아직도 이 지역에 옛 소리의 전통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속초 도문농요 입장하는 모습



3. 도문농요의 전승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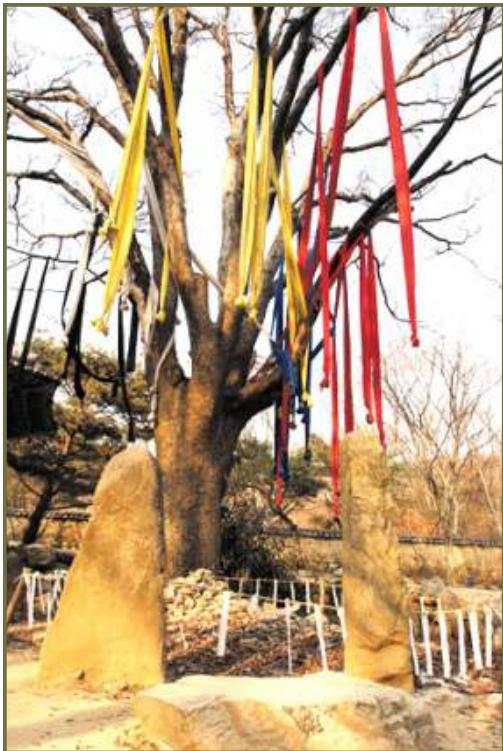
도문동 마을은 예전부터 농악이 있어서 정초가 되면 자신을 집집마다 찾아가 자신도 밟아주고* 또 마을의 중요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마을의 단합을 꾀하였다. 지금도 마을의 그런 전통이 이어져 주민자치 위원회를 여타 동리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당시 농기에는 – 이 지역에서는 농상기라고도 불렸다. – 광목에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자로 쓰고 붉은 수술(까치발)을 달았다. 위에는 수꿩의 깃털로 장식했는데 분량은 다른 마을보다도 풍성하게 보이려고 꿩 두 마리 분량을 사용했다. 이를 꿩장목이라고 불렸다.

또한 당시 조사*를 통해 농기 외에도 성황당에는 서낭대를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는 한지를 착착 접어 걸고, 또 실도 동여매 놓았다.

성황당*에서 먼저 서낭굿*을 한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다리굿도 치고 또 집집마다 방문하여 마당 굿도 쳤다. 그러면 주인은 마당 자신을 밟아주어 고맙다고 쌀을 성의껏 내놓았는데, 일부 박대를 하는 집이 있으면 서낭대를 거꾸로 끌고 나오곤 했다.

또한 마을의 중요 행사를 위해 걸립*을 할 때에는 당시 인근 신흥사에까지 가서 자신을 밟아주기도 했다.



◀ 성황당

당시 서낭쇠는 '서낭서낭 서낭님 동네밖의 서낭님…'이었는데, 이 유형의 쇠는 영동지역 전역에서 발견되는 쇠가락이다. 다리쇠 또한 '았따 그 다리 잘도 났다. 칠렁칠렁 건네가자…'인데 이 역시 영동지역 전역에서 발견된다.

60~70년 전 만해도 이곳은 행정구역상 속초시가 아니라 양양군 소속이었다. 그러던 것이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면서 도문동이 되었는데, 60~70년 전에 양양에서 별신 마당이 열리면 마을대항 농악 경연대회도 같이 열리곤 했었다. 당시 이 지역의 농악의 구성을 보면 논갈고, 논 삫고, 모심고, 김 매고, 벼 베고, 탈곡하고, 벼 지우고 이런 식으로 꾸며 참가했었다고 한다.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품한 <도문농요>의 내용은 이것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농사를 짓는 전체 과정을 놀이로 작품화하면서 ① 성황굿 ② 논삶는소리 ③ 모심는소리 ④ 김매는소리 ⑤ 질먹기 ⑥ 벼베는소리 ⑦ 황덕굿 등 7개의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문화돋보기



지신밟기* : 음력 정월 대보름 농악대가 집집을 돌며 지신(땅을 맑은 신령)을 달래고 복을 비는 민속놀이

조사* : 죽은 이를 슬퍼하고 생전의 업적을 기려서 조상(弔喪)의 뜻을 표하는 글
성황당(서낭당)* :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서낭을 모셔놓은 신당. 마을 어귀나 고갯마루에 원주형으로 쌓아 놓은 돌무더기 형태로. 그 곁에는 보통 신목으로 신성시되는 나무 또는 장승이 세워져 있기도 하다

서낭굿* : 서낭신을 위하는 굿. 무당이 음식을 차려 놓고 노래와 춤으로 신을 즐겁게 하여 복을 빈다

걸립(굿)* : 주로 명절 때 마을의 안녕을 위해 하는 농악

1) 첫째마당 : 서낭굿

정초가 되면 한해의 풍년을 빌기 위해서 도문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모여 제사를 올린다. 이때 풍물패가 성황당에 모여서 서낭굿을 친다. 신목과 서낭대를 농악대원들이 이 둥그렇게 원형을 그리며 감싼 후 주민들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상쇠가 쇠를 치면서 고사반*을 한다.

모십시오 모십시오 서낭님을 모십시오
서낭서낭 서낭님 강원도라 속초시에
설악산의 정기받은 도문동에 모십시오
서낭님 모셔놓고 금년농사 잘되라고 비옵니다
물 없는 눈에 물을 주시고 오곡 가득 점지해주시고
마을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서낭님께 비옵니다

▼ 서낭굿



2) 둘째마당 : 논삶는 소리

논삶는 소리는 '소모는소리'로 도문동에서는 주로 한스레 즉 거리소로 농사를 짓는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가 끄는 스레로서 보통은 일 잘 하는 소를 바른쪽에 세운다. 소 뒤에는 번지를 매달고 논을 가는데 소를 모는 성군은 소 한 마리 즉 호리소인 쪽스레로 논을 갈기도 한다. 논을 갈 때 유장한 가락에 느긋한 심성을 표출하는 이 소리는 소를 다 물고 끝이 날 때는 통칭 '~와'로 끝마무리를 한다. 논삶는소리는 가장자나 소를 모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이리이리
 어디야 이~이~
 이 큰암소야 어정거리지말고야~ 이이
 제값으로만 찾어들어라
 이러이리 헤이 이~
 어둬 어디야~ 이 오르내리지말구야 어디 얼릉 얼릉가자
 이러이리 이이
 설악산 화채봉에 해는야 올라섰는데 한눈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리 이이~ 어둬 어디야 이이~
 점심참이야 늦어가니 우리도 얼릉하고 말세
 이러이리 이이~ 어둬
 쇠머리에 모춤 올라앉겠구나 얼릉얼릉 잽싸게 가자
 이러이리 어~ 어둬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어서 가자
 이러이리 이~ 어둬 와와

▼ 논 삫기



문화돋보기



고사반*: 걸립패에게 대접할 물건을 차려 놓은 상. 쌀, 돈, 무명실 태래 따위를 올려놓으며 걸립패는 그 집에서 지신밟기로 풍요와 행운을 빌어준다.

3) 셋째마당 : 모찌고* 심는 소리

논을 갈고 한편에서는 모를 짰다. 모를 찔 때도 또한 소리를 하는데 흔히 '한춤 소리'라 부른다. '한춤'이라는 것은 모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이 '얼른 하더니 한 춤'이라고 소리를 하면서 모를 집어던지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또 소리를 하면서 모를 한춤 집어던진다. 이때 흥겹고 신나게 부르는 소리가 바로 '모찌는소리'이다. 마을에는 좌상*이 있어서 농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을 감독했다. 질(질례)을 짜면서* 농사가 시작되면 혹 늦게 오거나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할 분량을 남겨놓기도 한다. 대체로 좌상은 나이 드신 분이 맡아서 하고 일도 같이 하였다. 당시 농기를 든 패들은 남들보다 항상 먼저 나가 농토에다가 꽂아놓고 모를 쪘으며 모를 다 찌고 들어올 때도 농기를 앞세우고 농악을 울리면서 들어온다.

논을 다 삫으면 곧바로 모를 심는다. 이때 '심어주게~'로 시작되는 '모심는소리'를 흥겨운 가락에 맞춰 부르는데, 이 소리 외에도 아리랑, 어랑타령 등 다양한 소리가 모심을 때 불린다. 대체로 모심는소리는 강릉·양양·평창 등지에서 불려지는 소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가락도 상황에 따라 달라하는데, 신이 날 때에는 빠르게도 부르다가 또 오후 들어 힘이 들 때에는 천천히 부르기도 한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바다같은 요논배미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오종종 줄모를야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점심참이 늦기전에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초생달이 지기전에 심어를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동자같은 어린모를 심어를주게
 심어주게 심어주게 심어를주게
 얼시구 부지런히 심어를 주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 모찌고 심기

4) 넷째마당 : 김매는 소리

도문동 농요의 대표적인 소리인 메나리는 ‘김매는소리’를 말한다. 보통 두벌김*을 맬때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이 힘에 부치게 되므로 메나리가 불려지는데, 소리를 잘하는 농부가 앞 소절을 선창을 하면 나머지 농부들이 뒷 소절을 화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부가 소리를 못하면 일꾼이 아니라 꿀꾼이라는 말처럼 메나리 소리는 참일꾼만이 부른다고 한다. 이 메나리는 삼척권과는 달리 영북지방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소리로서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가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농촌에서는 세벌 김을 매고 나면 마을주민들이 하루 날짜를 정하여 잔치를 연다. 이것을 이 마을에서는 ‘질을 먹는다’라고 한다.



문화돋보기



모찌다*: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논을 갈고 논에 물을 가두는 일을 함

좌상*: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나 으뜸가는 사람

질(례)을 짜다*: 김매기를 위해 일꾼들을 구성하는 것

두벌김*: 두 번째 하는 김매기

매여나주계 매여나주계 요논배미 매여아어주오
동해동창 솟은해가 반공중에 높이아어떴다
아침해가 높이펴서 점심때가 되었다네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아어지고
시원한 벽중에 적삼입고 일을하세
지여나가네 지여나가네 점심참이 지여아어가네
지여간다 말만말고 요논배미 매여아어주계
잘도나하네 잘도나하네 총각대방 잘도아어하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설워마라
꽃이지면 아주나지나 명년삼월 다시피지

▼ 김매기



5) 다섯째마당 : 파대치기와 새쫓기

파대치기는 **파대***를 치면서 그 소리로 새를 쫓는다. 또한 주민들은 참새들이 범씨를 파먹으므로 워이워이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도문동 마을에서는 정월대보름날 새쫓기 풍속도 전한다.



▲ 파대치기

6) 여섯째마당 : 벼베는 소리

농부들이 논에 나가 벼를 베고 나서 소리를 하는데 이것이 '한단소리'이다. 이것은 벼를 베어 넘기며 '～한단'이란 구절이 들어가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실제로 낫으로 벼를 벨 때는 위험하다고 소리를 하지 않고 베 놓은 벗단을 묶을 때 한단 소리를 하게 된다.

얼런하더니 한단 나간다
 너두 한단이면은 나두 또 한단 나간다
 그 소리 끝나기전에 나도 또한단 나간다
 얼른 흄청흡청 하더니 또한단 나간다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얼른 흄청흡청 하더니 나도 또한단 나간다
 초승달 뜨기전에 너도 한단이야 나도 또한단 나간다
 한단 한단 하지말고 부지런히 하게나
 얼른 하더니 나도 또 한다 나간다
 너만 한단이야 나두 또 한단 나간다

문화돋보기

파대* : 가을철에 논밭의 새를 쫓기 위한 매끼. 짚을 꼬아 만든 줄 끝에 삼, 말종, 짐승 가죽 따위를 매어 만드는데 이것을 둘러서 치면 총소리와 같은 소리가 난다.

벼를 베어 놓으면 한편에서는 벗단을 가지고 벼를 세운다. 여기서는 벼 스무 단을 한타래라고 하는데, 이때도 소리를 한다. 벼를 베고 한편에서는 벗단을 세운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하니 또 넉단이로구나
다섯여섯단하고 일곱
여덟단에 아홉단 열단이로구나
열한단 열둘 열석단 열넉단이로구나
열다섯단 열여섯단
열일곱단 열여덟단
열 아홉단에 스무단
한 타래 세웠습니다
한 타래 더 세울까요
더 세우라면 더 세웁니다
한단이로구나 두단이로구나
석단 넉단 다섯여섯단하니 일곱단이로구나
여덟단 아홉 열 열한단에 열둘
열석단에 열넉단이요
열다섯 열여섯단 열일곱단에
열여덟단 열아홉단 스무단
두 타래 세웠습니다.

▼ 벼베기



7) 일곱째마당 : 마댕이와 벗가리 지우는 소리

벗단을 세우면 농촌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시작한다. 벼를 털어 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마댕이라고 한다. 태돌(태상)*에 쳐서 떨어진 벼 날알을 다시 도리깨*로 치면서 탈곡을 하는데 태돌이란 널찍한 돌멩이를 구해 놓고 사용을 했다. 도리깨는 보통 기능에 따라 상도리깨와 하도리깨로 구분하는데, 이때 상도리깨는 세로로 서서 먼저 치는 도리깨이고, 상도리깨가 치면 가로로 서 있는 여려 명의 하도리깨가 뒤를 받아친다. 상도리깨소리는 다음과 같다.

에호 에호 타작 한번 해보소
 에호 에호 에호 에호오
 상도리깨가 난다
 사람들은 많다만은 도리깨소리는 적구나
 천석이오 만석이오 금년농사가 대풍이오
 그럭저럭 하다보니 금년농사가 다끝났네

탈곡을 하여 벗가리*가 모이면 한 편에 짚으로 동그랗게 또바리*를 만들어 놓고 부채질을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면서 벗가리를 지운다. 이때도 '벗가리지우는소리'를 하는데 선창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후렴을 받는다. 벗가리를 지운다는 것은 먼지를 날린다는 것이다. 온 종일 탈곡을 하여 모아 놓은 것을 다시 한번 더 까불면서 먼지를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들고 퍼 올리면 키를 가지고 털어 내는 작업이다. 가래를 든 사람과 키를 든 사람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이렇게 털어 낸 벼 날알을 삼태기로 퍼서 곳간으로 보내는데, 여럿이 모여 작업을 할 때는 일렬로 서서 삼태기를 건네주면서 운반하기도 한다. 온종일 탈곡을 하고 나면 벼꺼풀이 여기저기 달라붙는다. 이를 '꺼끄랭이'라고 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황덕불을 해놓고 불에다가 옷을 벗어 훈든다. 그러면 불에 꺼끄랭이가 타버리면서 옷에서 잘 떨어진다. 벗가리지우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문화돋보기



태돌(탯돌)* : 타작할 때 태질(개상)에 벗단을 메어쳐서 곡식을 떠는 짓)에 쓰이는 돌

도리깨* : 곡식의 이삭을 두드려서 알갱이를 떠는 데 쓰는 농기구

벗가리* : 벼를 베어서 말린 후 탈곡하지 않은 상태로 벗단을 원뿔형으로 차곡차곡 쌓은 더미

또바리* : 땅의 강원도 방언, 동그라미

자 베를 지우려 시작합시다.
술 한잔씩 먹었으니까
자 여기다 또바리 해 놓았어요.
자 한 번 넘어가
또 가듬에 이쪽으로 넘어가
십오는 넘겨야 하는데
부채질을 세게 아이 하면은
세 번에도 또 잘 아니 됩니다.
또 지워야 되요.
부채질을 손 맞춰 잘해야 합니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벗가리가 넘어간다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손 맞춰서 부쳐주오 잘못하며 부채질쌈 나요
에호에호 에에이 에호
또바리가 나왔어요.
한 번 넘어갔습니다.
또바리 일장 받아 또 넣으니까
한번 더 넘겨야 되요.
이번엔 잘 좀 부쳐줘요.
제게 안부치면 또 부쳐야하니깐
괜히 여러 번 헛수고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 마댕이

4. 속초 도문농요의 특징

도문농요는 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다소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을 지니고 있다. 주로 오전에 부르는데 시조 창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농요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설악산 신흥사의 불교문화권역에 속한 도문동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자연적으로 염불이나 범파소리의 영향을 아닐까 의심된다.

메나리 사설은 김을 매는 하루의 일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김매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이후 점심때가 되니 점심참을 먹자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외 삶의 여러 모습들도 그 가사 속에 담는다.

김매기 소리는 메나리와 동강소리*로 구성된다. 나른한 오후에는 좀더 흡흡이 짧은 동강소리를 한다. 점심참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므로 김을 세게 매주기 위해 메나리보다는 빠르고 경쾌한 가락으로 동강소리를 부른다. 창법은 메나리와 비슷하다.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너머 연줄가네
그게어찌 연줄이냐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겼나 산이높아서 그늘겼지
질꾸질삼 잘하는여자 울렁바리 실어주소
질꾸질삼 못하는여자 매여나아어 떼어주오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몇해일새
우겨라 우겨

양양메나리를 보면 4/4조의 음수율*이 가능한 한 지켜지면서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면서 불러진다. 이에 반해 도문농요는 4



문화돋보기



동강소리* : 농사할 때 부르는 소리. 주로 빠르고 경쾌한 곡조임

음수율* : 가락의 리듬감을 주기 위해 글자 수를 일정하게 하는 것

음보의 음수율을 내재적으로 지키려고 하나 표면적으로 가사에서 약간의 일탈이 엿보인다.

또한 후렴도 비교된다. 도문농요는 후렴이 없으나 양양 메나리는 '이-히-'라는 후렴이 있고, 동강소리도 물론 후렴구와 더불어 소리를 끝맺을 때는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자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띄약볕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을 맬 때는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하며 오무리면서 원형 형태로 김을 매면서 소리를 한다. 이때 '우겨라'라고 추임새를 넣는다.

김을 맬 때 강릉에는 오독떼기를 부르는데 속초와 양양에서는 메나리를 부른다. 그러나 가창방법, 음역, 리듬, 형식, 선율형, 음조직, 종지형, 가사 등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 이남 지역인 삼척은 속초와 양양처럼 '메나리'보다는 '미노리' '미너리' '미눌이'라는 방언을 쓴다.

삼척메나리는 가사나 부르는 창법이 속초보다는 양양지역과 유사하다. 가능하면 지키려고 한 4음보나, 또 '이-후-'라는 후렴구를 붙이는 것 등



은 양양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 삼척메나리 주요 음이 '라'와 '도'로 선율은 이 주요 음을 바탕으로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메나리의 4마디가 각각 2마디씩 묶여 '라'로 시작하여, '도'로 올라가서 '미'나 '솔'로 내리는 흐름으로 이는 도문농요도 동일하다.

가사를 비교해보면 '동해동창 솟는 해' '명사십리 해당화'와 같은 동일한 가사도 엿보이고 또한 농촌임을 짐작케 주는 가사들이 많이 있고, 가창방법은 속초나 양양이나 비슷하다. 앞 소절은 선창자가 부르고, 나머지 3개의 소절은 모두 함께 부른다. '매여나주게'를 선창자가 '매기는 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3소절은 '받는소리'*를 부른다.

도문농요는 농민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으로 일이 더디면 소리를 빠르게 함으로써 일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또 일이 지루하면 경쾌하게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밝게 전환한다.

메나리 소리는 대체로 오전에는 느리면서 차분하게 소리를 하나 오후에는 빠르고 쾌활하게 소리를 한다. 점심참을 먹고 나서 새로 시작하자면 아무래도 오전만큼 싱싱하지가 않기에 기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밥에는 반찬이 날개요, 일에는 소리가 날개'라고 하듯이 소리꾼의 역할이 그만큼 강조된다. 소리를 못하면 진짜 일꾼이 아니라 꼴꾼*이라는 말도 그것을 반증한다.

영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메나리 소리는 제각기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삼척메나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법은 양양의 것과 유사하지만 소리의 톤(tone)을 보면 유장함이 오히려 도문농요와 통하는 점이 있다.



문화돋보기



매기는 소리* : 한 사람이 노래를 먼저 부르는 것(선창)

받는 소리* :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일정한 후렴구를 부르는 것
(후창)

꼴꾼* : 말이나 소에게 먹일 꼴을 베는 사람. 이 문장에서는 일을 못하는 사람을 뜻 함

양양메나리는 4/4조의 음수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특히 동강소리는 거의 철저하게 지켜진다. 또 '이-하-'라는 후렴이 있고, '우겨라 우겨'라는 추임새로 끝을 맺는다. 이에 반해 속초의 도문동 메나리는 4음보의 음수율이 표면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지만 그 곡조를 들어보면 내재적으로 4음보를 지키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소절이 끝날 때에 '~아 어~'란 여음이 들어가는데, 이 여음으로 곡조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양양지역과 비슷하다. 가창방법에서도 선창과 후창으로 구별되는 것도 두 지방에 비슷하다. 그러나 후렴이 없는 것이 양양이나 삼척과는 다른 속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속초 도문농요는 도문동이라는 특수한 불교문화권역의 농촌에서 불려졌으며, 일제강점기 도천면 시절에도 불려서 '도천메나리'라는 이름으로도 전승되었다. 도문농요가 삶의 소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은 농경문화가 차츰 사라져가는 오늘날에 민속문화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5. 속초 도문농요 보존회 활동

속초 도문농요는 지역에서 꾸준히 전승해온 지역주민과 속초문화원 등의 문화단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다. 지난 1991년 속초민속조사를 통해 도문농요의 가사와 전승실태 조사가 처음 이뤄졌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조사하여 도문농요 채록, 가창자의 음을 확보하여 보존과 전승작업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03년도에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열린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속초 도문농요를 전국에 알리게 되었다. 이후 강릉단오제, 설악문화제 등의 지역 축제에 참가하며 기반을 넓혀왔다.

이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2월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8년에는 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받아 향토민속의 보존과 전승에 힘

을 쓰고 있다. 2008년부터는 매년 2차례 지역학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가지고 있다.

▶ 활동사항

- 1991년 속초민속조사를 통해 도문농요 가사와 전승실태 조사
- 1994년부터 제1차 속초민요조사(도문농요 채록)
- 1998년 제2차 조사(가창자의 음 확보, 보존과 전승작업)
- 2002년 제3차 조사
- 2002년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연습(태풍 ‘루사’로 연기)

▶ 2003년부터 활동내역

-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최우수상(강원도지사상)
-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금상(문화관광부장관상)
- 2003 제38회 설악문화제 시연
- 2004 제39회 설악문화제 시연
- 2004~2005 속초국악협회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갓마당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 2005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초청공연
- 2005 설악미니콘서트 초청공연
- 2005 제40회 설악문화제 시연
- 2006 유네스코(세계인류구전및무형유산걸작), 국가중요무형문화재제 13호,
강릉단오제 초청공연
- 2006 부평풍물대축제 지방무형문화재 행사 초청공연
- 2006 제11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 초청공연
- 2006 「속초민속 발굴과 도문농요농요 발전」 학술세미나
- 2007 제3회 화랑영랑축전 초청공연
- 2007 강릉단오제 초청공연
- 2007 설악미니콘서트 초청공연
- 2007 제42회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 2008 제43회 설악문화제 초청공연
- 2008 강릉단오제 초청공연
- 2009 발표회 – 설악산 소공원, 학무정

속초 도문메나리(논매는 소리)

38 살음은 9도아래 3 노래: 김남일, 재보: 김혜정

애여 나
주 계
애 아나 으 예 예
주 y 계 해
요 논
애 v]
매 여 y 아 으 주
동 태
쪽
쪽
초 은 으
애 가 이
만 꿈
중 예
높 이 어 애 어 뜻 다

- 해설이 있는 우리문화 콘서트 -

속초 도리원 농악

속초 도리원 농악은
백년 전통의 고유한 농촌 서낭굿 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뱃고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기농악과 강릉농악의
장점을 계승한 영북지역 유일의 농악이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글자와 놀이를 접목시켜 시각적인 구성을
돋보이게 한 점도 이채롭다.

속초
도리원
농악



문화돋보기

뱃고사* : 배의 안전과 풍어를 위해 배에서 지내는 제사

1. 도리원 마을의 역사와 지리

속초시는 해안에 접한 구릉지와 저지대로 형성되어 내륙 쪽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1860년에 편찬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 보면 도문면(道門面)에 538명, 소천면(所川面)에 668명 등 총 1,206명이 거주하는 등 비교적 인구의 밀집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 인근 도문동 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도리원 앞의 평야지대를 지나 청초호로 유입되는 청초천 주변에 농토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도문면의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등은 풍부한 수원에 힘입어 평지의 논농사가 활발하였고 소천면의 논산리, 부월리 등에서도 주민들이 잘 발달된 평야지대를 끼고 농토를 경작하였다.

도리원(桃李源)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소천면 논산리에 속하였는데 노학동 지역 동북쪽 둔덕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악산 자락 끝에 넓은 소야평야 들판을 끼고 있다. 이곳의 농토 넓이는 390여 정보로 한 해 약 3,600석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농악놀이가 오랫동안 전승되었다.

도리원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천면 노리(蘆里, 노동)가 생기면서 노리마을 뒤 안쪽 둔덕에 마을이 있다하여 '뒤안둔덕' '뒤란덕이'라 부르던 것이 '되린덕'이 되고 이러한 발음을 따서 한자로 바꾼 '도리원'이라 정했다고 한다.

또한 이 마을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 불렸다고도 전하는데 소야별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에는 도원홍우(桃源紅雨:도리원리에 복숭아꽃이 떨어지는 것이 붉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와 척산야침(尺山夜砧:척산마을에서 옷감을 다듬이질 하는 밤의 경관)이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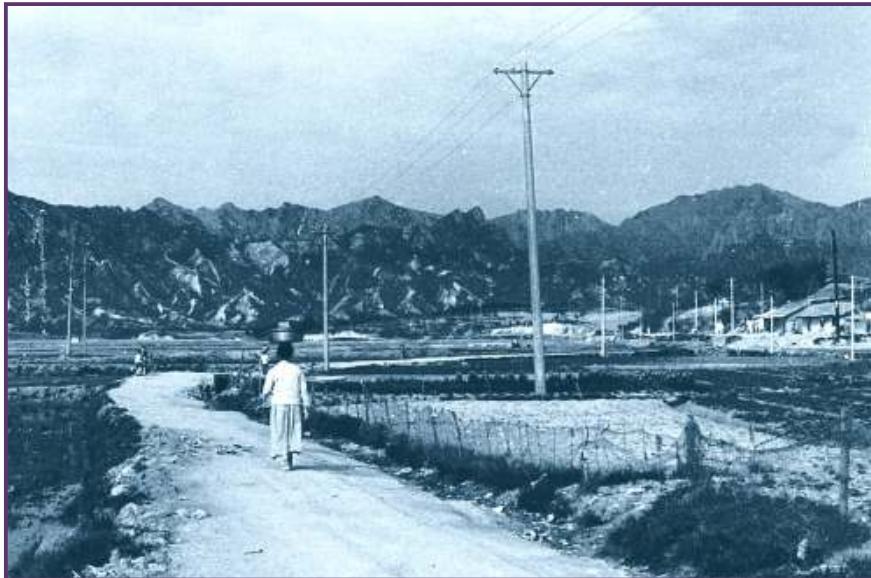
이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복숭아꽃과 다듬이질 경관이외에도 소야팔경(所野八景)을 기록한 《도천면 면세일반(道川面 面勢一班)》(대정 15년, 1926)에는 또 다른 팔경을 언급하였다. 즉 청호마경(靑湖磨鏡),

속초귀범(束草歸帆), 주교야화(舟橋夜火), 논산조양(論山朝陽), 온정조하(溫井朝霞), 노동명월(蘆洞明月), 청대화병(靑岱畫屏), 이동백설(梨洞白雪)이 들어 있는데 노학동과 청초호 일대의 아름다운 팔경을 언급한 것이다.

이 지역은 1966년 동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 노학동(蘆鶴洞)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리가 신설되었는데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노리는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를 포괄한 4개동으로 나뉘었고, 1962년에 이곳 뒷버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함에 따라 신흥리가 시설되었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의 '노'와 척산리 학사평의 '학'자를 딴 것이며 당시에 노리 지역이 합쳐져 노학동이 되었다.

이처럼 도리원 지역은 속초에서 유일하게 소야천 강변을 끼고 넓은 농토를 확보한 평야지대로 물레방앗간과 초가집이 아름답게 펼쳐진 농촌마을이었으므로 농악발생의 자연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70년대 도리원



2. 도리원농악의 유래와 계승

도리원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지금부터 500년 전 쯤으로 추정되는데, 농촌의 농악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백 년 전인 1900년대 초로 추정된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농악놀이가 전승되었는데 1910년 경 경기도 출신으로 웃다리 농악*대원이었던 이설기 씨가 강릉에 살다가 이곳에 아주 정착하면서 농악발전의 새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 마을에는 김경대, 최경수 씨 등이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농악대를 이끌고 있었으나 이설기 씨가 가세하면서 도리원농악이 크게 발전하였다.

경기도와 강릉에서 활동하면서 농악놀이에 재능을 가졌던 이설기 씨에게 쇠를 배운 엄상원 씨(남. 90)가 20세부터 현재까지 도리원농악 상쇠를 맡고 있다. 본래 도리원 출신인 엄상원 씨는 상벽구*를 맡았던 부친을 따라 무동으로 처음 농악을 시작했으며 당시 상쇠*였던 이설기 씨에게 체계적인 농악을 배우고 상쇠를 맡았다고 한다.

▼ 50년대 도리원 농악



한편으로 도리원농악대의 잡색인 '화댕이'로서 양반역을 맡고 있는 김동섭 씨(남.76) 집안도 도리원농악의 전승에 큰 기여를 했다. 김동섭 씨 부친인 김경대 씨는 농악대에서 *부쇠를 쳤고, 동생 김동수 씨는 벽구놀이를 잘했다고 한다.

이러한 고증에 따라 도리원농악 초창기 1기의 구성원을 정리하면 김경대(쇠), 이설기(쇠), 이호영(부쇠), 오창근(새납*), 김주섭(복), 최경수(새납, 고사반), 김동수(벽구), 양흥석(벽구), 김종대(벽구), 이호춘(벽구), 이세열(벽구), 김세열(복), 장기순(무동), 윤기준(무동), 최식중(무동), 이계춘(무동), 양춘석(무동) 씨가 1세대로 활약하였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는 광복절 기념 농악대회가 열렸다. 당시 강릉, 양양 등지의 농악대도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도리원농악대가 우승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성기를 누렸던 도리원농악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후반기에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거진, 삼척, 경기 수원 등지에도 초청을 받아 공연하였으며, 무동은 15세 전후의 남자아이들이 맡아서 했다.

도리원 농악대는 속초유일의 농악대로 활약을 거듭하였으나 1970년대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현상 등 인구의 축소로 전승이 어려워져서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설악문화제를 기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1986년 설악제 당시 도리원풍년마당놀이를 재현하면서 과거의 농악대가 행했던 농사풀이를 살리고,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도리원농악대를 개편하였다.

문화돋보기



웃다리 농악* : 충청·경기 지역의 농악

상벽구* : 벽구=소고. 소고잡이 중 가장 뛰어난 사람. 소고잡이를 지휘하는 사람

상쇠* : 쇠=팽과리. 팽과리잡이 중 가장 뛰어난 사람. 농악대를 총 지휘하는 사람

부쇠* : 상쇠의 역할을 보조하는 팽과리잡이. 농악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절하는 역할

새납* : 태평소

이 과정에서 속초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도리원농악대를 재건하여 1992년 설악문화제에는 동대항 농악경연을 개최하고 1995년 12월 29일 도리원농악대 옛 구성원이었던 엄상원, 양춘석, 최철수 씨를 중심으로 재 창단하게 되었다. 이들이 도리원농악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원은 28명으로 갯마당풍물단 5명과 도리원농악대 상쇠 엄상원 씨가 다시 팽파리를 잡고 정훈, 장기순, 이호성 씨가 참여하고, 장구는 김종인, 정한섭 씨 징은 이주복, 최식윤, 김기영, 북은 양춘석 기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도리원농악의 3세대는 속초풍물단원인 갯마당이 합세하면서 새롭게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 설악문화제 공연, 제15회와 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도리원농악' 출연 단의 상쇠 엄상원 씨가 연기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차지하였다. 현재 도리원농악은 고령이지만 1세대 초창기 대원인 엄상원, 김동섭, 양춘석 씨가 중심이 되어 잊혀졌던 판굿과 가락을 되살리고 젊은 대원들이 합세하여 속초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 마을태생으로 어려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악대 무동을 했던 양춘석(남. 65)씨는 당시에 어른들이 "농악을 하라고 하면 안할 수가 없었다"고 구술한다. 이와 같이 도리원농악대의 전통은 대를 이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속초도리원농악의 시작은 현재의 시점에서 추정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1900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1기라 할 수 있다. 6.25전쟁 등 혼란기를 지나 안정기에 들어서는 1960년대부터 새롭게 재창단되는 1990년대까지를 제2기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확보되고 속초시에 시립풍물단과 도리원농악단이 창단된 현재까지를 도리원농악의 제3기로 나눌 수 있다.



▲ 도리원농악 연습 장면

3. 도리원농악의 구성과 마당

도리원농악대의 놀이마당은 걸립굿, 서낭굿, 뱃고사굿, 농사풀이, 진놀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농악대는 정초 대보름부터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음력 2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마을이나 외부의 걸립굿을 하기전에 항상 마을서낭당에 가서 마을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농악대가 외부로 출타하거나 다리가 나올 경우 "다리다리 잘났다 칠령 칠령 건네서"라는 장단의 다리굿*을 치고 통과한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속초지역 특성상 뱃고사에도 농악대가 참여했으며 농사풀이와 다양한 형태의 진놀이도 구성되었다.



문화돋보기



진놀이* : 두 패로 갈라서 일정한 자리에 진을 쳐서 상대편을 이기는 놀이. 여기서 진놀이란 특정한 진(모양)을 만드는 놀이

다리굿* : 무당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고 혼령을 극락세계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하는 굿. 여기서 다리굿은 타지역에서 무사히 잘 다녀왔다고 다리 위에서 신께 올리는 굿

1) 서낭굿

도리원농악은 전통적 마을에서 행해지는 마을서낭굿농악의 흔적도 발견된다. 서낭제는 매년 3월과 9월 길일인 삼짓날*과 중구절*에 지내는데,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생육으로 제물을 사용할 정도로 마을서낭제는 중요하고 성대했다. 이때는 쇠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농악대가 외부로 공연차 출타할 경우 반드시 '질꾸내기*'를 치면서 마을서낭당을 들렸고 돌아올 때도 무사히 귀가한 것을 고한다고 한다. 서낭당에서 입출입 고사를 올리며 치는 상쇠의 쇠소리 구음도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이다.

이처럼 도리원농악대에는 반드시 서낭대를 앞세우고 다녔다고 하는데 서낭대를 '신대'라고도 부르며 왕대나무에 삼베와 한지를 걸었다. 이른바 이동서낭신으로 마을서낭신을 농악대의 신격으로 받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리원 서낭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황소 생육을 썼는데 소의 껍질을 말려 농악대원들이 손수 볶이나 장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노학동은 도리원, 이목리, 노리, 척산, 응골, 신흥1리, 신흥2리, 학사평, 자활촌 등 전체 9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4개 마을에 서낭당이 있었다. 1997년 조사 당시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에서 서낭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춘추로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차례 제를 지내고 있었다.

척산리의 경우 성황지신, 여역지신* 이외에 전조지신(田祖之神)*을 모신 점이 특징이었으며 학사평은 남서낭신이고 척산은 여서낭신이라 하였다. 이들 가운데 오랜 전통을 지닌 도리원마을은 과거에 제답(祭答)이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소출로 춘추로 동제를 지냈다. 또한 이 마을 농악대가 외부로 나갈 때는 반드시 서낭당에 들려고하고 나갔으며 서낭대를 모시고 다녔다.



문화돋보기



삼짓날(삼진날)* : 음력 3월 3일.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이다(봄의 시작을 알리는 때)

중구절(중양절)* : 음력 9월 9일. 제비가 강남으로 가는 날 (삼진날과 반대)

질꾸내기* = 길군악(길꼬냉이) : 농업 노동요 중 하나

여역지신* : 역병(돌림병)을 퍼뜨리는 신

전조지신* : 음력 6월 보름에 한해 농사에 대한 무병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논밭의 조상)



▲ 서낭굿

2) 벗고사굿

도리원농악은 대표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벗고사굿이다. 청호동과 동명동, 영랑동 등 바다를 끼고 생업을 유지한 어촌이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농촌농악이지만 벗고사굿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이 다른 영동지역농악과 차이점이며 이것이 도리원농악의 특징이다.

농악에서 '굿'을 사용하는 것은 무속적 용어와 동일하나 그 의미는 '의식이 행해지는 농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벗고사굿은 '벗고사 의식을 치르는 농악'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이른바 농악 분류에서 '어업굿'에 속한다. 농악대가 행하는 어업굿은 선창굿*, 배따라기*, 배굿, 띠뱃굿*, 풍어제, 슬비굿* 등이 있다.

속초에서는 정초 무렵 벗고사를 정례적으로 지낼 경우 외에도 새롭게 배를 만들면 속초나 고성지역의 선주들이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는 '설망' 때 든대질을 하면서 벗고사를 하였으며, 정초에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벗고사를 지낼 때도 도리원농악을 초청하면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강릉농악에 두레농악의 하나로서 여름농사가 마무리된 후 7월 이후에 배 위에서 농악을 잡하고 노는 벗놀이가 있으나 도리원농악대와 같은 방식의 벗고사는 아니다. 이를 '배굿' 또는 풍어제와 관계되는 '진대백이굿'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배에도 징과 팽과리 같은 악기를 싣고 다녔다고 한다. 정월에는 배에 고사를 지내고 무당과 농악잽이가 합하여 풍어와 무사함을 축

원 드리는데 이러한 굿은 바다에 접한 마을과 크고 작은 섬에서 하는 축원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영지방에서는 서낭기를 배 위에 장식하고 농악을 치면서 선주가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집돌이^{*}를 하고 있으며, 전북 부안과 강릉지방에는 농악대들이 배에 재수가 있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배성주신^{*}을 달래고 대접하며 잡귀를 물리는굿을 한다.

든대질은 육지에서 만든 배를 바다로 내리는 일이다. 든대는 일종의 자렛대와 같은 나무로서 '드는 대'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질'이란 행위의 뜻을 가진 '짓'과 같은 말이다. 든대질놀이는 노동요가 곁들어진 것으로 새로 배를 만들었을 때 항구가 없는 날바리 모래사장에서 주로 행했던 재래식 배이동 방식이다.

▼ 뱃고시굿



문화돋보기

선창굿^{*} : 어부들이 정월에 올리는 축원 굿

배따라기^{*} : 어부들의 신세 한탄과 풍어를 기원하는 노래

띠뱃굿^{*} : 음력 정월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마을사람들이 모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며, 한해 동안 안녕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대동 굿판. 배에 띠를 두름

슬비굿^{*} :

집돌이^{*} :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크게 먹을 것을 대접함

배성주신^{*} : 배위에 있으며 배를 지키는 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름(배마다 다름)

3) 진놀이

진놀이는 '진풀이'라고도 하는데 판굿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초창기 도리원농악의 진놀이는 십자진, 골뱅이진, 도리원, 대한독립만세 등의 글자새기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농악대가 초청받은 마을의 동이름을 새기면 걸립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1974년에 창단된 강원도 고성지방 교동농악의 경우 판굿으로 인사굿, 명석말이, 골뱅이진 등이 있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도리원농악대에 '화동' '화댕이'라 부르는 잡색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것은 '화동(花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농악에도 예전에는 있었다. 화동은 잡색과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도리원농악에는 양반이 잡색으로 등장하고 있다.

농악대에 양반이 등장하는 것이 가면극의 원초적 형태라는 견해 뿐 아니라 잡색의 연극성이나 제의성은 여러 방향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도리원농악의 경우 사라진 '화동'의 재현이 중요하다. 현행의 양반잡색은 고증에 없는 것으로 농악대를 이끄는 '질라잽이'가 양반의 역할 가장(假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리원농악의 진놀이 판굿에 대한 고증은 다음과 같다.



▶ 3-1)십자진 : 상쇠가 이끌어서 1번과 2번, 3번과 4번으로 나누어 일자로 만난다. 제자리에서 삼채 – 사채 – 오채로 정리 한다. 건풍가락에 훌수는 제자리에서 가락에 맞추고 짹수는 오른쪽으로 돌아 십자진대형을 갖춘다.



▶ 3-2)입구자진(□) : 십자진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한 다음 가운데 상쇠로부터 원을 돌며 풀어 나오게 된다. 쇠와 징이 세로의 한일자를 구성하고, 장구가 가로의 한일자, 소고는 세로의 한일자, 무동이 아래의 한일자 대형으로 구성하여 사각의 입구자진이 되게 한다.



▶ 3-3) 가마니짜기 : □(입구자)를 만든 다음 쇠와 징의 줄과 무동이 자리를 서로 바꾼다. 지나갈 때는 서로 왼쪽어깨를 스치듯이 이동하고 그 다음 장구와 북이 자리를 바꾼다 다시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 3-4) 밭전자진(田) : 가마니짜기가 끝난 입구자진에서 진을 풀어 田자(밭전자)를 만든다. 쇠와 징이 한일, 장구, 소고, 무동이 각각 한일로 바깥쪽에 사각을 만들고 북과 벽구가 안에서 열십자를 만들어 밭전자를 만든다. 진을 만들면서는 삼채–사채–오채가락, 대형을 갖추게 되면 긴풍가락을 치고 논다.

▶ 3-5) 글자놀이(고성) : 田자에서 풀어 나오면서 원진을 구성하게 되면 고성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노는데, 다른 지역에 초청을 받고 놀 때는 그 지역의 지역명을 만들고 논다.



▶ 3-6) 개인놀이 :

도리원 글자놀이에서 풀어 나오면서 쇠와 징, 장구가 한일자로, 북과 벽구가 그 뒤로 한일자, 소고가 세로로 한일자, 무동이 반대편 세로로 한일자로 하여 ㄷ자 대형을 갖춘다.



①개인놀이(소고놀이)

: 소고가 가운데에서 원을 만들어 상쇠와 함께 소고놀이를 한다.



②개인놀이(무동놀이)

: 무동이 가운데에서 원을 만들어 상쇠와 함께 무동놀이를 한다.



③ 개인놀이(열두발상모놀이)

: 열두발상모 두명이 가운데에서 열두발놀이를 한다.



④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놀이) : △자 대형에서 벽구와 소고, 무동이 나와 동고리와 그네놀이를 한다. 벽구가 단동고리를 만들어 그네를 만들고, 무동 1인은 그네에 타고 1인은 그네를 밀어주며, 소고잽이도 무동을 한다.



⑤황덕굿(인사굿) : □자 대형에서 진을 풀어 달팽이진을 만들며 한바탕놀이를 한 후 인사를 하고 퇴장한다.

4. 도리원농악의 편성과 복색

속초도리원농악은 고성, 양양의 영북권 강릉, 평창, 삼척 등 영동권에 속한 강원농악이나 판제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사굿, 골뱅이틀기, 십자진, 황덕굿, 농사풀이로 판굿을 진행하지만 황덕굿을 할 때 '쇠꼭지'라는 개인놀음이 있어 한 명씩 재주를 보이는 독특한 구성이 있고, 십자진풀이는 전개방법과 진풀이가 독특하다. 주로 걸립굿 중심의 농악으로 발달되어 오랫동안 외부활동을 하였으므로 초창기 무동은 대부분 15~18세의 남자들로 구성하였고, 해방 뒤에는 신파극놀이 등이 침가되어 잡색놀음도 연희되었다.

문화돋보기

동고리* : 판굿에서, 무동이 성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추는 춤. 여기에서 고리 버들로 동글납작하게 만든 작은 고리위에 그네를 만들어 무동이 그네를 탐

1) 편성

강원농악의 전승권역으로 불리는 지역은 북쪽의 고성에서부터 강릉, 평창을 비롯하여 남쪽의 삼척농악까지를 펴져있는데 초창기 도리원농악의 편제는 팽과리 3, 날라리 1, 장구 3, 북 2, 징 1, 벽구 8, 무동 8, 질라잽이 2, 화댕이 1, 기수 1명 등 30여 명이었으며, 가락은 삼채덩덕궁이, 춤사위는 덕거리춤이 주로 쓰였다.

특히 도리원농악의 무동은 팔무동으로 이들이 추는 춤사위가 갖는 의미가 심오하다. 즉 손바닥을 펴서 안으로 감거나 뒤집고 펴는 것 등이 모두의 행복을 찾고 행복을 나누어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무동은 고깔을 쓰고 쾌자를 입고 춤추는데 옛날의 도리원농악에서는 네 가지 색깔의 큰 종이꽃을 단 고깔에 삼색띠를 맷으며, 대부분 정초 무렵 걸립 때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리원농악 무동춤사위는 깨끼춤, 좌우치기, 발림 등으로 파악된다.

2) 복색

▷ 기(旗) : 도리원 농악의 기는 농기와 마을기가 있다.

1. 농기(農旗) : 농기는 긴 대나무 깃대에 지네발이 달린 기폭을 달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쓰고 깃대 꼭대기에 펑작목을 단다.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지네발은 검정색

2. 마을기 : 긴 대나무 깃대에 지네발이 달린 기폭을 달고 "束草桃李源農樂"이라 쓰고 깃대 꼭대기에 펑작목을 단다.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지네발은 검정색

▷ 서낭대 : 일명 '신대'라 부르며 악대가 외부로 공연차 출타할 경우 이동서낭신으로 모시고 다닌다. 이파리가 댓개 달린 왕대나무에 한 발 정도의 삼베와 한지를 함께 매단다.

▷ 악기(樂器) : 팽과리(4), 징(4), 장구(8), 북(8), 소고(8), 벽구(8), 호적(1)

▷ 복색(服色)

1. 상모 : 짚으로 또아리를 틀어 만든 다음 진자를 맞추어 얹고 펙을 메달아 만들었다. 굵은 무명실에 적자(구슬)를 여러 개 끼워 달고 길이는 2척에 끝부분에 4척의 얇은 한지를 매단다. 상모를 쓸 때는 머리에 머리수건을 등이고 짚상모의 끈을 얹어 머리에 마다. 50년대 말부터 한지를 이용해서 상모를 만들기 시작했다.

2. 고깔 : 흰색의 천과 종이에 상, 좌우측에 큰 종이꽃을 장식한다.

3. 상쇠 : 흰 바지 저고리에 청색 덧저고리를 입고 짚상모를 쓴다. 삼색띠를 어깨와 허리에 마다. (상벽구, 상소고 – 청색 덧저고리)

4. 서낭대, 단기수 : 흰바지 저고리에 삼색띠, 고깔을 쓴다.
5. 징, 장구 : 흰바지 저고리에 삼색띠, 퍽이 달린 짚상모를 쓴다.
6. 무동 : 흰 속바지에 붉은 치마, 노란저고리를 입고 남색쾌자를 걸친다.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7. 삼색띠 : 청색과 적색의 띠를 한번에 겹쳐 청색이 위로해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허리로 돌아 묶고 노란색띠를 허리에 두른다. 무동은 어깨에 엑스자로 하고 적색을 허리에 감아 묶는다.

▼ 도리원 농악 복색한 모습



5. 도리원농악의 특징과 연혁

도리원농악은 속초 유일의 농악대로 백여 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소야천을 감고 도는 소야평야 농토를 경작한 농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농악이라 하겠다. 옛날에 농악에 참여했거나 보았던 고증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도리원농악의 전반적 특징과 새로운 언급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리원농악은 서낭대를 모시고 행해진다는 점이다. 서낭대는 대나무 잎이 달린 긴 왕대로 만드는데 상단에 삼베와 한지를 매단다. 이는 도리원농악이 서낭굿농악에서 유래했음을 밝혀 주는 자료로서 농악대가 출타할 경우 반드시 서낭당에 들렸다는 옛 대원들의 고증에서도 이 농악이 전통적 기충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낭대





▲ 뱃고사굿

둘째, 도리원농악은 속초지역만이 갖는 어촌문화에 접목된 뱃고사굿을 쳤다는 점이다. 필자의 보고서에는 든대질놀이 때 농악이 들 어갔음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뱃고사굿의 과정과 그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뱃고사굿은 고사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끝나면 배위에 타고 항구를 한바퀴 돌았다. 무동들은 이때 배에 타거나 참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도리원농악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도리원농악은 걸립굿 때 '질꾸내기'(길군악, 질꼬내기라고도 함) 장단을 쳤으며 놀이판에서는 삼채덩덕궁이*를 중심가락으로 활용하였다. 놀이내용은 걸립굿, 황덕굿, 진놀이, 삼동고리반기, 열두발상모의 개인놀이와 농사풀이가 있었다. 특히 농악대에는 '질라잽이'라는 안내자와 '화동'이라는 잡색이 있었으며 농사풀이는 팔벽구와 팔무동이 연출했다.



문화돋보기



삼채덩덕궁이* : 경기농악에서 쓰이는 농악의 빠르기 장단

넷째, 도리원농악의 복색은 다른 농악과 차이가 나는데 상모는 짚상 모를 썼으며, 어깨끈도 청홍색을 하나로 겹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쪽만 매고 황색으로 허리를 묶었다. 이것은 1950년대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즉 징, 장구, 북, 벽구 등의 악사는 분명히 한쪽으로만 색띠를 매었으며 무동만 치마저고리를 입고 양어깨에 색띠를 매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양어깨에 엑스자로 청홍황색 끈을 매는 것과 다르다.

끝으로 속초도리원농악대의 활동사항과 특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혁

- 1900년대 이전 농악대 구성
- 1910년대 이설기 씨에 의해 지역농악에 경기농악이 가미된 색다른 농악전승
- 1930~40년대 대포동 별신제 등에서 공연
-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 개최된 광복절기념 농악대회 우승
- 1950년대 삼척, 경기 지역 등에서 공연
- 1986년 설악문화제 초청 도리원풍년마당놀이로 공연
- 1995년 속초도리원농악대 재창단, 엄상원, 양형석, 최철수 씨 중심
- 1997년 제1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 2001년 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 2002년 남산골 한옥마을 초청공연
- 2004년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엄상원 씨 연기상 수상
- 2005~2006년 정월대보름제, 설악문화제 초청 공연
- 2007년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 2008년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연기상 수상

- 해설이 있는 우리문화 콘서트 -

북청사자놀음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인 북청사자놀음은

樂·舞·劇이 함께 어울리는

전통문화의 백미라고 일컬어진다.

사자놀음을 비롯해 다양한 춤사위가

통소·장구·소고·북·꽹가리·징 등의

민속악기와 어우러져 오감(五感)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6·25 전쟁 후 속초에서 발원한 북청사자놀음은

지난 2005년부터 속초문화원이

문화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탈놀이와 우리 민속

우리나라 탈의 시작은 부산 동삼동에서 출토된 패면(貝面)과 강원도 양구에서 출토된 토면(土面) 등으로 보아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다. 1946년 경주 노서리 호우총에서 옻칠을 한 나무탈이 발견되었는데, 눈알은 유리로 되어 있고 두 눈에는 황금 환(環)이 그려져 있다. 방상시 가면으로 보이는 이 탈은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밖에 덕 물산(德物山) 가면과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13개의 하회탈 및 병산탈 등이 전해진다.

《삼국사기》와 최치원의 〈향악잡영 鄉樂雜詠〉에도 탈놀이 기록이 전해진다. 한편 분명하지는 않지만 신라시대 탈놀음으로 검무(劍舞)와 처용무(處容舞)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 현종 때의 학자 민주면(閔周冕)은 《동경잡기東京雜記》 풍속도에서 검무가 탈놀음임을 밝히고 있다. 이 검무는 관창의 용감한 이야기를 춤으로 놀이화한 것이다. 처용무는 오늘까지도 연희되는데, 《고려사》 고종 23년조에 복야(僕射) 송경인(宋景仁)이 처용무를 추었다고 기록된 것이 문헌상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나례행사 때 방상시가면*을 사용하였다고

▼ 처용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탈들이 뒷날 예능가면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조에는 산대잡희(山臺雜戱)에서 파생된 산대 가면극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각지방 민간에서 연희되어 오던 해서(海西) 가면극, 야류(野遊), 오광대가면극 서낭신제 가면극 등이 있다.

1) 탈의 종류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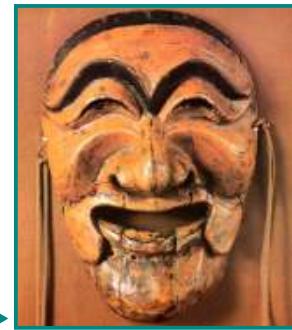
탈은 크게 신앙가면과 예능가면으로 나눌 수 있다. 신앙가면이란 일정한 장소에 가면을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거나, 얼굴에 쓰고 악귀를 쫓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앙가면에는 일정한 장소에 모시고 고사만을 지내는 신성가면과 악귀를 쫓기 위해 얼굴에 쓰는 구나(驅讐)가면이 있다. 그리고 예능가면이란 무용할 때나 연극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탈은 대부분 움직일 수 없으나, 방상시가면의 눈알과 봉산사자가면의 눈알, 북청사자가면의 입, 산대가면극의 눈끔적이가면 동래야류의 양반탈의 턱, 수영야류의 수양반(首兩班)탈의 턱, 하회가면극의 선비, 양반, 중, 백정 탈의 턱, 그리고 해서가면극의 홍주양반탈의 턱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 표정 변화가 편리하도록 되 뿐만 아니라 그 역(役)에 따른 인물의 개성도 잘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하회가면이 이에 속한다.

우리 탈은 한국적인 표정과 용모가 잘 나타나있는 선비, 양반, 각시, 중, 백정 등에 나타난 조각수법은 우리나라 나무 탈 중 걸작에 속한다.



◀ 봉산사자가면



하회탈 ▶



문화돋보기



방상시가면* : 악귀를 내쫓기 위해 얼굴에 쓰는 가면

2) 텔놀이의 의미 나례

나례(儻鬱豐)는 한 해의 재앙의 근원인 사귀를 쫓아내고 즐겁고 경사스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음력 12월 제야에 궁중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나례는 점차 악귀를 쫓아내는 종교적 의식에 그치지 않고 관중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 즉 나희(儻戲)로 변하였는데, 여기서 우인 또는 창우라고 부르는 직업인이 발생하고 이들이 연출한 우희 또는 잡희가 12세기 초에 출현한다. 산대잡희는 무대를 높이 가설하고 각종 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산대잡희 또는 산대잡극은 대개 정재무인 현선도, 가면무인 처용무와 곡예로서 장간기가 연출되며 동물의 모의춤도 공연한다.

산대잡희는 연등회와 팔관회 외에도 임금의 관람과 개선 장군의 환영연에도 행하였다. 나례와 산대잡희는 조선조에 전승되어 태종, 세종, 성종, 중종을 계속하여 광해군 때에 나례도감, 산대도감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2. 역사 속의 사자춤 기록

1) 삼국시대 사자춤기록

사자춤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사기 권32악지에 신라말 최치원(867~?)이 지은 절구시 향악잡영 5수에서 나온다. 다섯 가지 놀이 중에서 산예가 바로 사자춤이다. 여기에서 사자춤이 유사 즉 지금의 고비사막을 거쳐 왔다고 밝히고 있다. '멀고 먼 사막을 건너 만리 길을 오느라고, 털옷은 다 찢어지고 먼지를 뒤집어 섰네.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며 인덕을 길들이니 뛰어난 그 재주가 어찌 온갖 짐승과 같으랴' 여기에서 사자춤이 유사 즉 지금의 고비사막을 거쳐 왔다고 밝히고 있어 서역계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를 보면 512년(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할 때 목우사자(木偶獅子)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 악지에 보면 우륵(于勒)이 지은 20곡 중 사자기(獅子伎)가 제8곡으로 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백제기약에서도 사자기가 있었음을 일본 악서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 유적에는 불교와 관련된 우수한 사자의 조각품이 있다.

2) 고려시대 사자춤

고려시대에 사자춤은 이색(1328~1396)의 구나행이라는 한시에서 볼 수 있다. 이 시는 나례를 보고 읊은 것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1구에서 14구까지는 12지신과

진자들이 역귀를 내쫓는 의식을 묘사한다. 15구에서 28구까지 오방귀무*와 백택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백택과 신수는 사자의 별칭이다.

3) 조선시대 사자춤

조선시대에는 사자춤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서 언급된다. 성종 19년(1488) 3월에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명나라 董 越(동 월)이 자은 조선부에 의하면 중국사신의 영접 사에 평양, 황주와 서울 광화문에서 山臺(산대)를 가설하고 산대잡회를 공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실학자 유득공의 경도잡지 권1 성기조에 의하면 나래도감에 속하는 山戲(산희)에 사자가 나온다. 또한 그림으로도 볼 수 있다. 김홍도의 〈평안감사환영도 平安監司歡迎圖〉나 〈화성성역의궤〉의 〈낙성연도 落成宴圖〉에 사자춤이 보인다.

4) 북한지역 사자탈춤연희

조선시대 후기에는 함경도 전역에서 사자놀이가 연희 되었는데 특히 북청지방에서 성행하였다. 북청군은 3개읍, 11면에서 제각기 사자놀이를 연희하였는데 동네마다 등장인물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북청읍 사자놀이는 댓벌사자, 이촌사자, 중촌사자, 동문밖 사자, 당포사자, 후평사자, 북리사자 등이 유명하였다. 연희시기는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부터 햇불싸움을 마치고 도청에 모여 벽사진경과 안과태평을 목적으로 거행되었다.

백수의 왕인 사자가 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등장하여 잡구와 재앙을 내쫓고 대보름 다음날에는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잡귀를 내보내는 나례*의 매귀*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마을이 태평하고 번성하기를 기원하며 진행하였다. 더불어 사자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한바탕 신나게 놀고 아이를 사자에 태워주면 무병장수하고, 사자털을 몰래 베어 부적같이 소지하고 있으면 횡액을 막는다는 종교적 기능과 마을을 방문하면서 생긴 돈과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고 마을의 장학사업과 경로사업 등에 사용함으로서 사회통합적 기능이 계승, 보존되고 있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어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시적 사자극놀음 또는 경연식 무대극으로 변화되었다.

문화돋보기



오방귀무* : 제사 때 주는 춤

나례* : 음력 설날 밤에 민가와 궁중에서 마귀와 사신(邪神)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푼 의식

매귀* = 지신밟기

5) 분단 후의 북청사자놀음

분단 후 북청사자놀음은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다. 전쟁통에 남한으로 월남한 피난민들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발굴,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북청군민회와 함경남도가 주축이 되어 북청군에서 월남한 인사들을 수소문한 결과 동대문구 청량리를 비롯한 인근 지역과 강원도 속초지방에 북청군민들이 집단거주 하는 것을 찾아 함경남도 도청 직원인 강윤성씨가 접촉하여 사람들을 규합하였다. 이때에 모인 인사들이 마후섭, 동태선, 윤영춘, 마희수, 동시협, 변영호, 동성영, 이근화선, 전종식, 오동술, 이인섭, 김수석, 김하륜 씨 등이었다. 청량리와 속초지방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연희되었던 것을 근간으로 발굴, 복원 작업을 하면서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함경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공식 무대에 알려지게 된다. 지속적으로 연희 활동을 하던 중 1966년 서울대학교 이두현 교수가 조사자로 참여하여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어 13분의 인간문화재와 두 분의 준인간문화재, 7명의 전수조교 및 40여명의 이수자 및 전수자를 중심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다.

▼ 50년대 북청사자놀음 공연 모습



3. 북청사자놀음 개요

북청사자는 현재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사자탈이다. 북청사자놀음에 나오는 구성원은 사자·꺽쇠·양반·중·점바치·의생·거사·무동 등이다. 꺽쇠는 험상궂은 탈을 쓰며 양반은 긴 수염이 달린 탈을 쓰고 머리에는 관을 쓰며 도포를 입는다. 거사는 탈과 고깔을 쓰고, 사자는 2사람이 앞뒤에 서서 사자가면을 쓴다. 북청의 사자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명절놀이로 많이 놀았다. 놀이의 처음은 도청(이 지방의 고유한 공동집회장소)에서 벌어지는 마당놀이다. 마을마다 마당놀이를 놀고 난 다음에 아직 흥이 사라지지 않은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횃불을 앞세우고 여러 마을들로부터 사자행렬이 북청읍으로 모여든다. 이러한 행렬이 끝난 후 읍내 큰 마당에서는 사자놀이 경연이 벌어진다. '사자널리리'의 신명나는 악곡이 울리는 가운데 사자춤이 계속된다. 마당에서의 경연이 끝나면 각기 호별 방문으로 들어간다. 집마당을 돈 후 사자는 궁거리장단에 맞추어 '넋두리춤'을 추며 격조 높은 북장단에 '검모루춤'을 춘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집안에 숨은 악귀를 몰아내는 시늉을 한다.

▼ 꺽쇠탈(좌), 양반탈(우)



북청지방에서는 사자놀음 벌이는 것을 일러 '사자놀린다'고 하는데, 집 안에서 풍물을 치고 사자를 놀리면 잡귀가 물러나 액을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고 한다. 이 마당놀음에서 탈춤과 우스꽝스런 재담으로 양반들의 탐욕과 악덕을 비판하는 극적 줄거리를 지닌다. 사자놀이의 특징은 쌍통소와 북으로 구성된 악대가 보여주는 북방 특유의 소리를 치며, 연희의 내용은 길놀이·마당놀이·애원성춤·사당춤·칼춤·무동춤·꼽새춤·사자춤·재담·넋두리춤 등으로 구성된다. 이 놀음은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기·예능보유자는 김수석(金壽石 : 사자앞머리역, 1997 해제)·변영호(邊永鎬 : 사자제작, 악사, 1996 해제)·동성영(董誠英 : 사자앞채)·여재성(呂在成 : 사자뒤채)·전광석(田光石 : 칼춤, 2002 해제)·이근화선(李根花善 : 사당춤)이다.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큰 마을에서 벽사진경*(邪進慶)을 목적으로 놀았던 민속놀이로 나무·종이·대광주리·천 등으로 사자의 형상을 한 사자탈을 만들어 놀이꾼이 함께 어울려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며 노는 탈놀음이다. 이는 각 가정과 마을에 대한 벽사의 뜻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으로부터 사례로 받은 돈과 곡식 등을 마을 공공사업과 사자놀음의 비용 등에 충당되어 마을민의 공동체의식을 결속시키는 데 한몫을 한 세시풍속이었다.

사자놀음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어 사자춤만 따로 놀기도 하고 탈놀이 속에 한 과장으로 어울려 놀기도 하는데, 그중 북청사자놀음이 유명하다. 그외 현준하는 민속극에서 사자춤이 연행되고 있는 것은 봉산탈춤·통영오광대·수영야류·하회별신굿탈놀이 등에서이다. 사자춤은 보통 2명이 사자의 앞뒤를 맡아 앉아서 좌우로 머리를 돌려 이를 잡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면서 몸을 굽기도 하며 타령이나 굿거리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한다. 그러다가 봉산탈춤에서는 채찍으로 때리는 사자몰이를, 통영이나 수영사자는 장단에 맞춰 담비와 싸우다가 담비를 앞다리 안으로 끌어들여 잡아먹는 시늉을 한다.



▲ 봉산탈춤

4. 북청사자놀음 구성

북청사자놀음은 마당놀이와 사자놀이 마당으로 구분되어져 연희된다.

1) 마당놀이

▶ 제1과장 양반. 꺽쇠 : 마당 한 가운데 길잡이가 혐상궂은 탈을 쓰고 마당을 정리정돈하면서 연희의 시작을 알린다. 남루한 복색을 입은 꺽쇠(현재의 하인)가 옥색도포를 입고 부채와 장죽을 잡은 양반을 모시고 입장한다. 마당 한 가운데에서 북청지방의 역사적 사실과 사자놀이에 대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대사를 나눈다.



문화돋보기



벽사진경* : 사귀(邪鬼)를 쫓고 경사(慶事)로운 일을 맞이함

- ▶ 제2과장 애원성 춤 : 양반의 주문에 의하여 흰 한복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악사들이 통소를 중심으로 북, 장구, 징 순서로 입장하고 양반과 꺽쇠가 춤을 한바탕 준다. 이어서 화사한 옷차림을 한 애원성 춤이 입장한다. 느린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애원성을 창자(唱者)가 불러준다.
- ▶ 제3과장 거사. 사당춤 : 흰 한복 저고리를 입은 2명이 소고를 가지고 거사들이 이 춤을 준다. 거사는 마을에서 식자총에 속하지만 무위도식하는 인물이다. 이어 화려한 복색과 한삼을 낀 사당들이 입장하여 함경도 고유의 춤인 넋두리 춤을 경쾌하고 사뿐한 춤을 준다. 사당은 특정한 거처가 없으면서 노래와 춤을 판 창기(娼妓)의 일종이다.

▼ 애원성 춤



- ▶ 제4과장 무동춤 : 건장한 남자와 부녀자가 아들과 손자를 어깨에 태우고 입장하여 아이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춤사위를 연출한다. 이는 북청사자놀이가 연희자와 비연희자가 구분 없이 즉흥성이 강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 제5과장 곱추춤 : 흰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댕기머리를 한 처녀가 빠른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다양한 춤사위를 연출하며 흥겹게 춤을 추면서 관객들에게 웃음의 도가니로 몰입시킨다.

▼ 곰추춤



- ▶ 제6과장 칼춤 : 황금색 의상으로 건장한 군인이 약간 느린 굿거리장단을 시작으로 빠른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중앙에 있는 칼을 향해 춤을 춘다. 칼을 잡고 나서 용맹스런 춤사위를 연출한다.
- ▶ 제7과장 넋두리춤 : 명절에 맞춰 제각기 예쁜 한복을 입은 춤꾼들이 등장하여 함경도 전통춤인 넋두리 춤을 춘다. 이 춤사위의 특징은 손이 어깨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면서 경쾌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춤을 연출한다.

▼ 넋두리춤



2) 사자놀이 마당



▲ 사자춤

▶ 제8과장 사자춤 마당

사자춤은 초장, 중장, 말장으로 구분되어져 진행된다. 초장은 느린 굿거리장 단에 맞춰 의인화된 사자춤을 보여준다. 사자가 굼실굼실대며 '모래기'를 준다. 모래기 순서는 하상좌우(下上左右) 힘과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며 춤사위를 보여준다.

중장은 백수의 제왕으로 용맹한 맹수의 모습을 연희한다. 이때 모래기*는 역동적이고 활달한 춤사위를 연출한다. 한편에서는 승무가 입장하여 길게 늘어진 한삼을 사자를 중심으로 뿐린다. 사자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체력을 소진하여 양반이 건네준 토끼를 먹고 쓰러진다. 양반의 제의대로 스님이 입장하여 염불을 외고, 꼭쇠가 자청하여 의원을 불러 들여 사자에게 춤을 놓고 감로수를 먹어 소생시킨다.

말장은 소생한 사자가 신명나게 놀면서 입을 맞추고, 입사자(立獅子)를 하는 등 기묘한 춤사위를 연출한다. 거사가 마당주위를 돌면 연기자와 관객들이 한바탕 신명나는 춤을 연출하고 한쪽에 위치한 집에서 영감과 노친이 나와서 재앙과 잡귀를 몰아내는 의식을 벌인 후 아이들 사자에 태우고 벽사진경과 안과 태평을 기원한다. 영감과 노친은 꼭쇠에게 쌀과 엽전을 주고 신명나게 춤추기를 권유한다, 온 부락 사람이 나와서 한바탕 춤을 추고 마지막에 마을의 최고 어른인 존위에게 마당놀이 마지막을 보고하면서 대동놀이를 마무리한다.



문화돋보기



모래기* : 사자가 춤을 추면서 고개를 좌,우 또는 상,하로 젖히는 모양

▼ 사자와 승무

